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4.10.02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EU 회원국의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 급증(10.1)

-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의 총 투자 금액은 150억 유로에 달하였으며, 이는 Horizon 2020 파트너십에 투입한 금액의 약 5배에 해당
-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은 전체 필라2 예산의 39%를 차지하며, 호라이즌 유럽 예산 249억 유로에 더해 회원국과 산업계의 투자 금액을 합쳐 추가로 386억 유로가 투입됨
- ※ 파트너십이 필라2 예산의 49.9%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파트너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음
- 공동사업단(JU)이 파트너십 전체 예산의 58%, 공동프로그램(co-programmed) 파트너십이 30%, 공동자금지원(co-funded) 파트너십이 12%를 차지
- 클러스터4의 경우 파트너십이 클러스터 예산의 약 57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, 클러스터6 파트너십의 경우 23%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

○ 영국, FP10 참여 의향 표명(9.26)

- 상대적으로 친유럽 성향을 가진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영국은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
- 영국은 FP10에 대해 잘 정립된 세 개의 필라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이해와 참여를 도울 것이라고 하며 '혁명보다는 진화를 지지한다'라고 밝힘
- ※ EU는 2028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전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제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, 새로운 구조하에서 영국과 같은 제3국과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불분명
- 또한, 영국은 FP10 예산 증액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, 특히, 보안 R&D 분야에서 EU와의 협력을 강조하였고, 연구 우수성 중심의 지원 방식을 지지함을 밝힘

○ EU 15개 회원국 장관, FP10에서 Widening 프로그램 확대 요구(9.25)

- 15개 참여확대국(widening countries) 연구 장관들은 자하리에바 신임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(FP10)에서 Widening 프로그램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확대를 요구
- 한편, 일부 국가와 로비 그룹은 Widening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오직 우수성만을 기준으로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
- ※ 예를 들어, 덴마크는 현재 Widening 프로젝트가 '측정되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최적이 아니다'라며 동 프로그램을 FP10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